

# DBpia

## 신라 성덕왕 시기 전염병 퇴치 의례와 수로부인

Rite to Fight Infectious Diseases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deok of Silla and Lady Su-ro

---

**저자** 이장웅  
**(Authors)** Lee, Jang-woong

**출처** [신라사학보](#) , (52), 2021.8, 369-402 (34 pages)  
**(Source)** [SILLASAHAKPO](#) , (52), 2021.8, 369-402 (34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04638>

**APA Style** 이장웅 (2021). 신라 성덕왕 시기 전염병 퇴치 의례와 수로부인. 신라사학보, (52), 369-402.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10/08 14:0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성덕왕 시기 전염병 퇴치 의례와 수로부인

이 장 응\*

I. 머리말	III. 전염병 퇴치 의례와 수로부인
II. 신라 성덕왕 시기의 역병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신라 聖德王 시기 전염병의 실상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퇴치 의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성덕왕 시기에 활발한 교류를 진행한 일본의 사서인 『續日本紀』의 기록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삼국사기』에 기록된 714년 이외에 705~707년, 735년, 736~737에도 역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성덕왕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삼국유사』 수로부인 설화에는 당시 높은 귀족이었던 純貞공이 지방에 파견되어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로부인을 잡아 간용을 지역 백성들과 함께 퇴치하며 부인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필자는 이 설화에 당시 가뭄과 같은 이상 기후와 기근이 가져왔을 전염병에 대한 퇴치 의례의 모습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삼국사기』 제사지를 통해 전염병 퇴치 의례가 행해졌을 제사 장소를 추적해 보았고, 『天地瑞祥志』의 자료를 일본의 『속일본기』 기록 등과 연결시켜 보면서, 전염병 퇴치 의례의 시기와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주제어 : 新羅, 聖德王, 續日本紀, 水路夫人, 전염병 퇴치 의례

\* 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주요논저 : 2021, 『서울 역사의 시작, 한성백제』, 학연문화사 : 2020, 「무령왕릉 출토 유물을 통해 본 대장 의례와 그 사상적 배경」 『韓國思想史學』 66 : 2020, 「백제 捧寶珠菩薩像의 연원과 제사 의례」 『한국고대사탐구』 36.

## I. 머리말

신라사에서 전성기에 해당하는 中代에 神文王의 둘째 아들로 孝昭王에 이어 國人의 추대에 의해 702년 왕위에 오른 聖德王은<sup>1)</sup> 이듬해(703년) 정월 神宮에 친히 제사를 지낸 이후, 오랫동안 재위하면서 대체로 왕권이 안정된 태평성대의 평화로운 시기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sup>2)</sup>

그러나 성덕왕(재위 702~737) 시기 대부분은 빈민을 구제하고 기우제와 大赦를 빈번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해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면서 아사자와 유망민이 속출하여, 한국 고대사에서 재해가 가장 많았던 시기이기도 했다.<sup>3)</sup> 따라서 성덕왕 시기에 대하여 기존의 정치사적 이해만이 아니라 재해와<sup>4)</sup> 이를 퇴치하기 위한 의례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중 『삼국사기』에 기록된 총 11회의 신라 중대 역병 기사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록이 성덕왕대인 714년의 역병이다. 『삼국사기』 성덕왕 본기에는 疫病(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이것 하나밖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속일본기』의 기록에서는 疾疫이 유행한 기록이 자주 나타나면서 가뭄 및 기근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신라 성덕왕 시기에는 신라와 당, 일본 사이에 매우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한국 고대 남북국 시대의 역병도 중국 당에서 시작되어 신라나 발해를 경유하여 일본에 전파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sup>5)</sup> 그렇다면 『삼국사기』 성덕왕 본기의 가뭄과 기근 기록을 일본의 『속일본기』에서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기록과 비교하여, 『삼국사기』에 기록되지 않은 역병에 대한 모습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 1) 성덕왕의 즉위에 대해서는 曹凡煥, 2015, 「신라 중대 聖德王의 왕위 계승 再考 - 『三國遺事』의 五臺山事蹟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43 참조.
- 2) 李基白, 1982,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韓國史講座』 古代篇, 一潮閣; 李基東, 1998, 「新羅 聖德王代の 政治와 社會 - '君子國'의 內部事情」 『歷史學報』 160.
- 3) 이호영, 1971, 「한국 고대사회의 재해와 구빈책 -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史學志』 5, 39쪽; 이기봉, 2011, 「新羅 聖德王代の 災異와 儒敎政治」 『韓國史研究』 152, 3쪽..
- 4) 성덕왕 시기를 동아시아 재난의 관점에서 바라본 최근 연구로 이장웅, 2020, 「8세기 전반 신라, 발해, 일본의 외교 경쟁과 재난」 『동아시아고대학』 59가 있다.
- 5) 이현숙, 2013, 「역병으로 본 한국고대사」 『新羅史學報』 28, 273쪽.

이와 관련하여 『高麗史』 卷55, 志9, 五行3, 土에 의하면, “土는 중앙에 위치하면서 만물을 생장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가뭄이나 수해로 대지 위의 초목과 곡식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는 재변(稼穡不成)은 土의 성질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러한 稼穡不成의 직접적인 결과는 饑饉으로 나타난다. 흉년을 만나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여 굶어죽는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稼穡의 재변으로, 『고려사』 오행지 토행편 14개 항목의 첫째 항목으로 大饑를 기록하였다.<sup>6)</sup> 이어 두 번째 항목으로 역질과 같은 전염병의 재변인 大疾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가뭄이나 수해로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면 土의 성질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여 기근이 나타나며, 역시 土와 관련하여 역질도 나타난다. 특히 『禮記』 月令에 의하면, “仲冬에는 土의 일을 짓지 않는다”면서 “겨울에 土의 일을 짓게 되어 地氣가 위로 漏泄하게 되면, 천지의 집이 열려 모든 숨어 있는 것들이 죽게 되므로, 이에 백성들에게 반드시 疾疫이 생기게 되고, 이어서 초상을 치르게 된다”고 하였다.<sup>7)</sup> 따라서 가뭄이 기근을 초래하고, 기근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역병의 유행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周禮』 天官冢宰 下 疾醫에서는 疾醫가 만민의 질병을 관장하는데, 사계절마다 각기 그에 해당하는 전염병인 癘疾이 있다고 하였다.<sup>8)</sup> 이에 대하여 후한의 鄭玄은 “癘疾이란 氣가 不和한 疾[癘疾 氣不和之疾]”이라고 주석하였다. 이로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 환경의 氣가 不和했을 때에 역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했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天人相關說과 관련시켜 백성들의 원망하는 마음(冤氣)과 통치자에 대한 하늘의 견책이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정치 권력자는 역병의 유행 사실을 가능하면 남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실제 기근은 면역 체계의 약화를 초래하여 역병의 유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기록에는 기근 기사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6) 김일권, 2011, 「토행편 역주」 『『고려사』의 자연과학 오행지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481~487쪽.

7) “土事母作 慎毋發蓋 毋發室屋 及起大衆 以固而閉 地氣沮泄 是謂發天地之房諸蝥則死 民必疾疫 又隨以喪.”(『禮記』 月令)

8) “疾醫掌養萬民之疾病 四時皆有癘疾.”(『周禮』 天官冢宰 下 疾醫)

그리고 『삼국사기』의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라서 역병과 관련된 증후나 이를 퇴치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지만, 이 역시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는 『속일본기』 기록과 비교하여 살펴본다면 전염병의 증후와 퇴치 의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 신문왕, 효소왕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삼국유사』 惠通降龍조를 전염병의 전파와 관련시켜 해석한 견해가 있다.<sup>9)</sup> 본고에서는 그동안 막연하게 성덕왕 시기의 제의 행위와 관련하여 해석하였던 『삼국유사』 성덕왕조와 수로부인조를 전염병 퇴치 의례와 관련시켜 해석하고자 한다.

대략 신라 성덕왕 재위 시기에 해당하는 일본의 697년부터 737년의 대역병 발생 이전까지 역병 대응책은 醫藥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대부분이었던(총 27건 중 24건) 반면에, 737년의 대역병 때에는 탕약을 지급했다는 1건의 치료에 관한 기록 외에는 모두 종교와 민생 분야의 대책이었고, 특히 불교 등의 종교적 행사가 매우 빈번하였다고 한다.<sup>10)</sup> 이는 일단 의약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치료할 수 없는 역병에 대해서는 종교 의례를 행한 것으로, 당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던 신라 성덕왕 시기의 역병 및 그 대응책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비교해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라 성덕왕 시기의 전염병과 그 퇴치를 위한 종교적 의례에 대하여 『삼국사기』만이 아니라 『삼국유사』 수로부인조를 비롯하여 일본의 『속일본기』 자료를 참조하면서 유추해보고자 한다.

## II. 신라 성덕왕 시기의 역병

### 1. 714년의 역병 기사와 705~707년의 역병 추정

A-①. 여름에 가물어 많은 사람들이 疾疫에 걸렸다. 가을에 歙良州 산의 상수리나무 열매가 밤으로 변했다.<sup>11)</sup>

A-②. 5월에 사면하였다. 6월에 크게 가물었다. 왕이 河西州 龍鳴嶽의 居士 理曉를 불러

9) 노중국, 2011, 『삼국유사』 惠通降龍조의 검토-질병 치료의 관점에서,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2.

10) 정기용, 2020, 「역병의 대유행과 조정의 대응책-天平 9(737)年 역병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53, 10쪽.

11) 「夏旱 人多疾疫 秋 歙良州山橡實化爲栗.」(『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13年(714))

林泉寺 연못가에서 비를 빌게 하였더니 비가 열흘간이나 내렸다.<sup>12)</sup>

A-③. 태풍이 불어 나무가 뽑히고 기와가 날아가고 崇禮殿이 무너졌다. 당에 들어갔던 賀正使 金楓厚가 신라로 돌아가려 하자 員外郎에 제수하여 돌려보냈다. 여름 6월에 가물어서 또 居士 理曉를 불러 기도하였더니 비가 내렸다. 죄인을 사면하였다.<sup>13)</sup>

A-①은 『삼국사기』 성덕왕 13년(714)에 기록된 성덕왕 본기의 유일한 직접적인 역병 기록으로, 자연 환경의 氣가 不和함에 해당하는 가뭄에 따라 역병이 발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A-②와 ③에 의하면, 다음 해(715)와 그 다음 해(716)에도 계속 가뭄이 들어 河西州 龍鳴嶽의 居士 理曉를 두 번이나 불러 林泉寺(경주 헌덕왕릉 남쪽 북천 가)의 연못가에서 기우제를 지냈으며, 그 과정 전후에는 사면도 계속 이루어졌다. 이처럼 역병과 가뭄 퇴치를 위해 하서주(강릉)의 龍鳴嶽(용이 우는 산) 居士 理曉를 두 해 연속 불러 왕경에 자리한 임천사 못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은, 뒤에서 살필 『삼국유사』 수로부인 설화에서 강릉 지역 안무를 위해 제사한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성덕왕 13年(714)이라는 역병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唐에서는 707년(中宗 복위 3) 여름 提安에서 山東, 河北까지 疫疾이 일어나 死亡者가 수천명이었고, 708년(中宗 복위 4)에는 河南, 山東에 疫疾이 일어나 1천명이 사망했는데, 이 707년과 708년에 걸쳐 당에서 유행한 전염병이 신라에 상륙하여 이 714년의 역병으로 나타났다는 견해가 있다. 즉 707년 당 장안에서 시작하여 708년 산둥 지방에 다다른 뒤, 바다를 건너 신라 서해안 지방에 상륙하여 신라 사회를 휩쓸기까지 7여 년이 걸렸다는 것이다.<sup>14)</sup>

그렇지만 신라와 활발히 교류했던 일본에서 705~707년에 역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신라에서도 역병이 유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당시 신라는 唐과도 매우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점에서, 비록 신라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때 신라와 당, 일본은 거의 동시에 역병이 유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성덕왕 시기에는 한·중·일 간의 교류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12) “五月 赦 六月 大旱 王召河西州龍鳴嶽居士理曉 祈雨於林泉寺池上 則雨浹旬.”(『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14年(715))

13) “大風拔木飛瓦 崇禮殿毀 入唐賀正使金楓厚欲歸國 授員外郎還之 夏六月 旱 又召居士理曉 祈禱則雨 赦罪人.”(『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15年(716))

14) 이현숙, 2001, 「신라통일기 전염병의 유행과 대응책」 『한국고대사연구』 31, 231쪽.

점에서,<sup>15)</sup> 문화 교류와 함께 전염병의 전파도 시차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B-①. 봄 정월에 왕이 친히 神宮에서 제사지냈다. 唐에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쳤다. 가을 7월에 靈廟寺에 불이 났다. 京都에 홍수가 나서 빠져 죽은 이가 많다. 中侍 元誨이 물러나자 阿浪 元文을 중시로 삼았다. 日本國에서 사신이 왔는데 모두 204명이었다. 阿浪 金思讓을 보내 唐에 조회하게 하였다.<sup>16)</sup>
- B-②. 봄 정월에 熊川州에서 금빛 영지를 진상하였다. 3월에 당에 들어갔던 金思讓이 돌아와서 『金光明最勝王經』을 바쳤다.<sup>17)</sup>
- B-③. 봄 정월에 中侍 元文이 죽자 阿浪 信貞을 중시로 삼았다. 3월에 唐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여름 5월에 가물었다. 가을 8월에 노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9월에 殺生을 금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당에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쳤다. 겨울 10월에 나라 동쪽 州郡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많이 流亡하였으므로 사신을 보내 賑恤하였다.<sup>18)</sup>
- B-④. 丙子(30일) 신라의 貢調使 一吉浪 金儒吉 등이 來獻하였다.<sup>19)</sup>
- B-⑤. 癸酉(27일) ... 이 날 신라 사신 金儒吉 등이 入京하였다. 이 해에 여러 國들 중 20개 지역에 기근과 疫病이 생겼다. 아울러 醫藥을 주어서 이들을 賑恤하였다.<sup>20)</sup>

B-①·②에 의하면, 성덕왕 2년(703) 당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아찬 金思讓이 3년(704) 3월에 귀국하면서, 번역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最勝王經(金光明最勝王經)』을 가져왔다. 이는 『法華經』, 『仁王經』과 함께 護國三部經으로 불

15) 이장웅, 2020, 「신년 의례를 통해 본 8세기 전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신라·발해·당·일본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49.

16) “春正月 親祀神宮 遣使入唐 貢方物 秋七月 靈廟寺災 京都大水 溺死者衆 中侍元誨退 阿浪元文爲中侍 日本國使至 揚二百四人 遣阿浪金思讓朝唐.”(『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2年(703))

17) “春正月 熊川州進金芝 三月 入唐金思讓迴 獻最勝王經.”(『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3年(704))

18) “春正月 中侍元文卒 以阿浪信貞爲中侍 三月 遣使入唐朝貢 夏五月 旱 秋八月 賜老人酒食 九月 下教 禁殺生 遣使如唐 獻方物 冬十月 國東州郡饑 人多流亡 發使賑恤.”(『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4年(705))

19) “丙子 新羅貢調使一吉浪金儒吉等來獻.”(『續日本紀』 卷3, 慶雲 2年(705) 10月)

20) “癸酉 ... 是日 新羅使金儒吉等入京 是年 諸國廿飢疫 並加醫藥賑恤之.”(『續日本紀』 卷3, 文武天皇 慶雲 2年(705) 12月)

린다. 특히 第6 四天王品에서는 四天王이 이 경을 讀誦하고 강설하는 국왕과 백성을 수호하여 국난과 기아와 액병 등을 제거하고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다.<sup>21)</sup> 이로 보아 『金光明最勝王經』의 역자인 義淨의 사상이 唐 則天武后의 불교 치국책과 함께 신라 성덕왕에게 전해졌고, B-③에서 성덕왕 4년(705)에는 殺生을 금하는 교서를 내리는 등의 불교 시책을 내놓으면서 唐과의 관계가 더욱 활발해졌다.<sup>22)</sup> 특히 『금광명최승왕경』에는 유난히 질병과 의학에 관해 논한 것이 많으며, 그중 除病品은 의술이 뛰어난 持水 長者가 역병에 고통 받는 대중을 보고 괴로워하는 아들 流水에게 偈頌 형식으로 불교 의학이 가지는 질병 인식의 요체를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한다.<sup>23)</sup>

『三國史記』에 기록된 B-③의 성덕왕 4년(705)과 뒤에서 살필 C-①의 5년(706) 기사는 신라에 기근이 있어 구휼하였다는 내용으로, 역병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그런데 『續日本紀』에 기록된 B-④에서 705년 10월에 신라 사신 金儒吉 등이 일본에 도착하였고, B-⑤에서 이들이 12월에 入京하였는데, 이 해에 일본 여러 國들 중 무려 20개의 지역에서 기근과 역병이 발생하여 醫藥을 주어 賑恤하였으므로, 이는 대체로 신라 사신이 역병 감염의 원인이 되어 많은 지역에 전파되면서 유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역병은 뒤의 D-③에서 보듯이 707년 4월까지 꾸준히 유행하였다.

이처럼 705년 신라 사신의 방문 이후 일본에 역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이때 신라에서도 역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B-⑤에 의하면, 같은 시기의 일본에서는 기근과 역병이 함께 나타나 의약을 주어 진휼하였다. 머리말에서 보았듯이, 정치 권력자는 역병의 유행 사실을 가능하면 남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고, 실제 기근이 역병의 유행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기근 기사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면, B-③의 『삼국사기』에 기록된 성덕왕 4년(705)의 기근 기사를 그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21) 金興三, 1998, 「新羅 聖德王의 王權強化政策과 祭儀를 통한 河西州地方統治(上)」 『江原史學』 13·14合, 111쪽.

22) 『최승왕경』의 번역자인 唐의 義淨은 계율을 중시한 승려였고, 그를 존경한 측천무후의 신불 경향이 성덕왕에게 전해졌으므로, 성덕왕 역시 災異의 극복 등을 위하여 불교를 治國의 방편으로 삼을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禁殺生 下教을 시행하였다는 견해가 있다(신선혜, 2016, 「신라 성덕왕대 禁殺生 下教의 배경과 의미」 『韓國古代史研究』 83).

23) 이현숙, 2009, 「질병, 치료, 종교 : 한국 고대 불교의학」 『韓國思想과 文化』 48, 147~148쪽.

- C-①. 春正月 … 나라 안에 기근이 들어 창고(倉廩)를 열어 진휼하였다. 3월에 衆星이 서쪽으로 떨어졌다. 여름 4월에 당에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쳤다. 가을 8월에 中侍 信貞이 병으로 물러나자 大阿湊 文良을 중시로 삼았다. 당에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쳤다. 곡식이 잘 자라지 않았다. 겨울 10월에 당에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쳤다. 12월에 크게 사면하였다(大赦).<sup>24)</sup>
- C-②. 神龍 2년(706) 丙午 5월 30일에 지금의 大王(성덕왕)이 佛舍利 4과, 6寸 크기의 순금제 미타상 1구, 『無垢淨光大陀羅尼經』 1권을 석탑의 2층에 안치하였다. 이 福田으로 위로는 神文大王, 神陸太后, 孝照大王의 대대 聖廟가 涅槃山을 베고 菩提樹에 앉는데 도움이 되기를 빈다. 隆基大王(성덕왕)은 수명이 山河와 같이 오래고 지위는 軋川(關川)과 같이 크며 1000명의 자손이具足하고 七寶의 상서로움이 나타나기를 빈다. 왕후는 몸이 달의 정령과 같고 수명이 劫數와 같기를 빈다. 내의 친속들은 옥나무처럼 장대하고 보물 가지처럼 무성하게 열매 맺기를 빈다. 梵天, 帝釋天, 四天王은 威德이 더욱 밝아지고 氣力이 자재로워져서 천하가 태평하고 항상 法輪을 굴러 三塗의 중생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六道의 중생이 즐거움을 얻으며 法界의 중생이 모두 佛道를 이루기를 빈다.<sup>25)</sup>
- C-③. 이해에 天下 여러國들에 疫疾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많이 죽었으므로, 처음으로 土牛를 만들어 크게 驅儺 의식(大儺)을 행했다.<sup>26)</sup>

C-①의 『三國史記』 기록은 신라에서 705년에 이어 706년 1월에도 기근이 들었고, 8월에는 곡식까지 잘 자라지 않아, 12월에는 크게 사면을 했다는 기사이다. C-②는 바로 이해 5월에 皇福寺 石塔을 건립하고 佛舍利, 순금제 미타상,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을 봉안하면서, 신문왕과 효소왕의 聖廟가 열반에 이르고, 성덕왕과 왕후가 장수하며, 자손이 번성하기를 비는 내용이다. 이어 梵天, 帝釋天, 四天王의 威德에 기대어 氣力을 얻어 천하가 태평하고 중생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佛道를 이루기를 기원하고 있다. C-③의 『續日本紀』 기록에 의하면, 일본에

24) “春正月 … 國內饑 發倉廩賑之 三月 衆星西流 夏四月 遣使入唐 貢方物 秋八月 中侍信貞病免 以大阿湊文良爲中侍 遣使入唐 貢方物 穀不登 冬十月 遣使入唐 貢方物 十二月 大赦.”(『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5年(706))

25) “神龍二年丙午五月卅日 今主大王佛舍利四全金彌陀像六寸一軀無垢淨光大陀羅尼經一卷安置石塔第二層 以下以此福田上資神文大王·神陸太后·孝照大王 代代聖厝枕涅槃之山坐菩提之樹 隆基大王壽共山河洞久位與軋川等大 千子具足七寶呈祥 王后體額月精命同劫數內外親屬長大玉樹茂實寶枝 梵釋四王威德增明氣力自在 天下太平恒轉法輪三勉難 六趣受樂 法界含靈俱成佛道.”(『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記』)

26) “是年 天下諸國疫疾 百姓多死 始作土牛大儺.”(『續日本紀』 卷3, 文武天皇 慶雲 3年(706))

서는 706년에도 계속 유행하고 있는 역병을 물리치기 위하여 흙으로 빚은 소(土牛)를 이용한 대규모 驅儼 의식이 처음으로 행해졌다.

- D-①. 봄 정월에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자 한 사람에게 하루에 3升씩 곡식을 나누어주기를 7월까지 계속하였다. 2월에 크게 사면하였다(大赦). 백성들에게 五穀의 종자를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겨울 12월에 당에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sup>27)</sup>
- D-②. 乙亥(6일) 여러 國들의 疫病으로 인하여 사신을 보내 大祓을 행하였다.<sup>28)</sup>
- D-③. 丙申(29일) 天下에 疫病과 기근이 들었다. 詔를 내려 振恤하였다. 丹波, 出雲, 石見의 3國이 더욱 심하여 여러 神社에 幣帛을 바쳤다. 또 京畿와 여러 國들의 사원에서 讀經을 하게 하였다.<sup>29)</sup>

D-①의 『三國史記』 기록에 의하면, 신라에서는 707년에도 계속 기근이 들어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자 한 사람에게 하루에 3升씩 곡식을 나누어주었고, 2월에는 크게 사면하였으며, 백성들에게 五穀의 종자를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D-②의 『續日本紀』 기록에 의하면, 일본의 역병 역시 707년에도 계속되면서 2월에 사신을 각 지방으로 보내 大祓을 행했다. D-③에서는 4월에도 振恤 후 여러 神社에 幣帛을 바쳤으며,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여러 사원에서 讀經을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예로 보면, 전염병이 돌면 먼저 의약을 주어 진흙하였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못했으므로 퇴치 의례로 土牛를 이용한 驅儼(儼禮)과 大祓 등의 의식을 행했고, 마지막으로 불교의 독경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도 B-①의 『最勝王經』과 함께, 뒤의 J-①과 L-① 『삼국유사』 성덕왕조로 보아 『仁王經』도 독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대 일본에서 土牛는 궁정으로 역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였고, 대규모 驅儼 의식(大儼)은 12월 31일 밤에 方相氏, 侏子가 궁궐의 內裏에서 행한 疫鬼 추방 의식이었다.<sup>30)</sup> 이러한 전염병 퇴치 의례는 신라에서도 행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27) “春正月 民多饑死 給粟人一日三升 至七月 二月 大赦 賜百姓五穀種子有差 冬十二月 遣使入唐 貢方物.”(『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6年(707))

28) “乙亥 因諸國疫 遣使大祓.”(『續日本紀』 卷3, 文武天皇 慶雲 4年(707) 2月)

29) “丙申 天下疫飢 詔加振恤 但丹波·出雲·石見三國尤甚 奉幣帛於諸社 又令京畿及諸國寺 讀經焉.”(『續日本紀』 卷3, 文武天皇 慶雲 4年(707) 4月)

30) 정기웅, 2020, 「역병의 대유행과 조정의 대응책」 『일본역사연구』 53, 30쪽.

## 2. 735년의 역병

- E-①. 辛巳(11일) 遣新羅使 從 5位 下角朝臣家主 등이 돌아왔다. 丁亥(17일) 從 4位 上 多治比真人廣成을 遣唐大使로, 從 5位 下 中臣朝臣名代를 副使로 삼았다. 判官이 4人이고 錄事가 4人이었다. 正 3位 藤原朝臣房前을 東海·東山 2道の 節度使로, 從 3位 多治比真人縣守를 山陰道の 節度使로, 從 3位 藤原朝臣宇合를 西海道の 節度使로 삼았다. 道別로 判官 4人, 主典 4人, 醫師 1人, 陰陽師 1人이었다.<sup>31)</sup>
- E-②. 戊午(20일) 遣唐大使 從 4位 上 多治比真人廣成 등이 조정에 배알했다.<sup>32)</sup>
- E-③. 癸巳(26일) 遣唐大使 多治比真人廣成이 하직 인사를 하였고, 節刀를 주었다.<sup>33)</sup>
- E-④. 己亥(3일) 遣唐船 4척이 難波津에서 출발하였다.<sup>34)</sup>

『續日本紀』에 의하면, E-①에서 일본은 신라에 파견한 角朝臣家主 등의 사신이 732년 8월 11일에 귀국하자마자, 17일에 10차 遣唐使를 임명하고 일본 국내의 방위 체제를 갖추기 위해 節度使를 설치하였다. 특히 道別로 醫師와 陰陽師를 배치한 점이 주목된다. 질병의 치료 및 퇴직 의례와 관련되는 醫博士와 陰陽博士가 이미 6~7세기에 백제에서 왜로 전해진 바 있는데,<sup>35)</sup> 8세기에는 일본의 지방에까지 정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E-②에서 733년 3월 20일에 건당사가 일본 조정에 배알하였고, E-③에서 윤3월 26일에 節刀를 받았으며, E-④에서 4월 3일에 難波津을 출발하였다. 이들은 大使 多治比廣成 및 뒤의 G-③에서 발해 사신과 함께 귀국한 判官 平都廣成 등으로 구성된 遣唐使이다. 이로 보면, 당시 신라와 일본의 외교는 당과의 외교와도 밀접하게 연동되면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sup>36)</sup>

31) “辛巳 遣新羅使從五位下角朝臣家主等還歸 丁亥 以從四位上多治比真人廣成爲遣唐大使 從五位下中臣朝臣名代爲副使 判官四人 錄事四人 正三位藤原朝臣房前爲東海東山二道節度使 從三位多治比真人縣守爲山陰道節度使 從三位藤原朝臣宇合爲西海道節度使 道別判官四人 主典四人 醫師一人 陰陽師一人.”(『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4年(732) 8月)

32) “戊午 遣唐大使從四位上多治比真人廣成等拜朝.”(『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5年(733) 3月)

33) “癸巳 遣唐大使多治比真人廣成辭見 授節刀.”(『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5年(733) 閏3月)

34) “己亥 遣唐四船自難波津進發.”(『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5年(733) 4月)

35) 백제에서 왜로 醫博士와 陰陽博士 등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는 이장웅, 2021, 『백제 불교의 일본 전파와 역병』 『동아시아고대학』 63 참조.

- F-①. 丁丑(20일) 入唐大使 從 4位 上 多治比真人廣成 등이 多祢嶋에 도착하였다.<sup>37)</sup>
- F-②. 癸巳(6일) 大宰府에서 “신라의 貢調使 級伐浪 金相貞 등이 와서 정박하고 있다”고 아뢰었다.<sup>38)</sup>
- F-③. 癸卯(17일) 신라의 사신 金相貞 등이 入京하였다. 癸丑(27일) 中納言 正 3位 多治比真人縣守를 兵部の 曹司에 보내서 신라 사신이 入朝한 뜻을 물었다. 그런데 新羅國이 갑자기 본래의 호칭을 바꾸어 王城國이라 하였다. 이로 인해 그 사신을 돌려보냈다[返却].<sup>39)</sup>
- F-④. 丙寅(10일) 入唐大使 從 4位 上 多治比真人廣成 등이 唐國에서 돌아와 節刀를 바쳤다.<sup>40)</sup>

733년 4월에 일본을 출발했던 견당사 중 F-①에서 大使 多治比廣成 일행은 734년 11월에 多祢嶋(현재 九州 남쪽 大隅諸島)로 돌아왔으나, 뒤의 G-③에서 살펴볼 判官 平郡廣成 일행은 풍랑을 맞아 이때 돌아오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739년에야 발해 사신과 함께 발해로를 통해 귀국한다.<sup>41)</sup>

한편, F-②에서 734년 12월에는 金相貞 등의 신라 사신이 일본 大宰府에 도착하여 F-③에서 735년 2월에 入京하였는데, 入朝의 이유를 묻는 일본 관리에게 자국을 ‘王城國’으로 소개하였고, 당시 중화 의식에 사로잡힌 일본 조정에 의해 방환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F-④에서 735년 3월에는 견당사 多治比廣成 일행이 돌아왔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처럼 신라 사신이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방환되고, 大使 多治比廣成으로 구성된 일본 견당사의 귀국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 G사료

36) 이에 대해서는 이장웅, 2020, 「신년 의례를 통해 본 8세기 전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신라·발해·당·일본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49 참조.

37) “丁丑 入唐大使從四位上多治比真人廣成等來著多祢嶋。”(『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6年(734) 11月)

38) “癸巳 大宰府奏 新羅貢調使級伐浪金相貞等來泊。”(『續日本紀』 卷11, 聖武天皇 天平 6年(734) 12月)

39) “癸卯 新羅使金相貞等入京 癸丑 遣中納言正三位多治比真人縣守於兵部曹司 問新羅使入朝之旨 而新羅國輒改本號曰王城國 因茲返却其使。”(『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735) 2月)

40) “丙寅 入唐大使從四位上多治比真人廣成等 自唐國至進節刀。”(『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735) 3月)

41)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이장웅, 2020, 「8세기 전반 신라, 발해, 일본의 외교 경쟁과 재난」 『동아시아고대학』 59 참조.

에 의하면, 이러한 교류 직후 일본에 역병이 창궐하였다.

- G-①. 乙未(12일) “듣건대 요즘 大宰府에 疫病에 걸려 죽은 자가 많다고 한다. 역병의 기운을 구제하고 치료하여 民의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는 勅을 하였다. 이에 幣帛을 그 部の 神祇(天神地祇)에게 바치고, 民을 위해 기원하도록 했다. 또 大宰府의 大寺와 別國(대재부가 관할하는 國)의 諸寺에서 『金剛般若經』을 독경하였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 역병에 걸린 民을 넉넉히 구휼하게 하고, 아울러 湯藥을 지급했다. 또 長門에서 동쪽에 있는 諸國의 守 또는 介는 齋戒하고 道饗祭祀를 진담하였다. 丙午(23일) 大宰府에서 “管内의 諸國에서 疫瘡이 크게 발생하여 百姓들이 모두 병석에 누워 있으니, 올해의 貢調를 중지시켜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허락하였다.<sup>42)</sup>
- G-②. 戊戌(17일) “災變이 자주 나타나고 疫癘가 끊이지 않으니 天下에 大赦한다”는 詔를 내렸다. ... 이 해에는 심하게 흉년이 들었고 여름부터 겨울까지 天下가 豌豆瘡(세속에서는 裝瘡이라고 한다)으로 병들었다. 어린 나이에 죽은 자가 많았다.<sup>43)</sup>
- G-③. 辛卯(739년 11월 3일) 平郡朝臣廣成이 조정에 배알했다. 처음에 廣成은 天平 5년(733)에 大使 多治比真人廣成을 따라 入唐했다. 6년(734) 10월에 일을 마치고 돌아 오는데, 4척의 배가 함께 蘇州를 출발하여 바다로 나갔으나, 나쁜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서로 잃어버렸다. 廣成의 배에 탄 115人是 崑崙國에 漂着했는데, 賊兵이 와서 포위하여 마침내 붙잡혔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피살되거나 혹은 달이나 흩어졌으며, 나머지 90여 명은 瘵(역병)으로 사망했다. 廣成 등 4인은 겨우 죽음을 면해 崑崙王을 뵈 수 있었다. 이에 약간의 식량을 얻어 나쁜 곳에 안치되었다. 7년(735)에 이르러 唐國 欽州의 熟崑崙에 도달하였다. 곧 몰래 배를 태워주어서 탈출하여 드디어 唐國으로 돌아왔다. 본국(일본)의 학생 阿倍仲滿을 만나 곧 황제에게 보고하고 入朝할 수 있게 되어, 渤海路를 취해 본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청했다. 天子가 허락하고 배와 양식을 주어 출발하게 하였다. 10년(738) 3월에 登州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5월에 渤海 경계에 이르렀다. 마침 그 왕 大欽茂가 사신을 뽑아 우리 조정(일본)에 찾아가고자 할 때를 만나 즉시 함께 출발했다. 풍랑이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발해의 배 한 척이 파도를 만나 기울어져 뒤집어졌다. 大使 胥要德 등 40인이 물에 빠져 죽고, 廣成 등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出羽國에 도착하였다.<sup>44)</sup>

42) “乙未 勅曰 如聞 比日大宰府疫死者多 思欲救療疫氣以濟民命 是以 奉幣彼部神祇 爲民禱祈焉 又府大寺及別國諸寺 讀金剛般若經 仍遣使賑給疫民 并加湯藥 又其長門以還諸國守 若介 專齋戒道饗祭祀 丙午 大宰府言 管内諸國疫瘡大發 百姓悉臥 今年之間欲停貢調 許之.”(『續日本紀』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735) 8月)

43) “戊戌 詔 以災變數見 疫癘不已 大赦天下 ... 是歲 年頗不稔 自夏至冬 天下患豌豆瘡(俗曰裝瘡) 天死者多.”(『續日本紀』卷12, 聖武天皇 天平 7年(735) 閏11月)

G-①에서 735년 8월 일본 大宰府에는 역병에 걸려 죽은 자가 많아지자, 폐백을 神祇에게 바쳐 기원하고, 大宰府 내의 여러 사원에서 『金剛般若經』을 독경하였다. 또한 사신을 보내 구휼하고 탕약을 지급하였으며 長門國의 동쪽에 있는 여러 國의 守 또는 介에게 齋戒하고 道饗祭祀를 행했다.

長門國은九州에서 들어오는 本州의 서쪽 끝에 위치한 지역으로 아직 역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道饗祭는 역병이九州에서 本州로 넘어오기 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을 지닌 의례였음을 알 수 있다.<sup>45)</sup> 곧, 앞서 살핀 C-③에서 706년에 土牛를 이용한 大儺 의식을 행한 것과, 735년에 행한 道饗祭는 모두 밖에서 들어온 역병을 막기 위한 제사였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역병의 전파 경로는 大宰府에서 시작되어九州를 거쳐 本州로 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국과의 교류와 함께 그 관문에서부터 나타나는 역병의 발생 원인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후 G-②의 735년 윤11월에는 大赦도 행했다. 735년 한 해 동안 일본에는 흉년이 심했고, 여름부터 겨울까지 天下가 豌豆瘡(裳瘡)으로 병들었으며, 어린 나이에 죽는 자가 많았다고 기록하였다.

앞서 F-①에서 734년 11월에 일본의 견당사가 귀국하여 F-④·⑤·⑥에서 735년 3·4·5월에 왕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F-②에서 734년 12월에 신라 사신이 일본에 들어갔다가 F-③에서 735년 2월에 방환당했다. 따라서 735년에 일본에서 유행한 역병은 같은 시기에 도착한 신라 사신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당에서 귀국한 일본의 견당사에 의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733년의 일본 견당사는 당과의 외교를 마치고 734년 10월에 蘇州를 출발한 4척의 배로 귀국을 시도하였으며, F-①에서 大使 多治比廣成 일행은 11월에 多祿鳴로 무사히 귀국하였지만, G-③에서 判官 平郡廣成 등이 탕던 배는 풍랑을 만나 115인이 남쪽 崑崙國(林邑의 남쪽)에 표착하였는데, 그중 90여 명이

44) “辛卯 平郡朝臣廣成拜朝 初廣成 天平五年隨大使多治比真人廣成入唐 六年十月事畢却歸 四船同發從蘇州入海 惡風忽起彼此相失 廣成之船一百一十五人漂着崑崙國 有賊兵來圍遂 被拘執 船人或被殺或逃散 自餘九十餘人着瘴死亡 廣成等四人 僅免死得見崑崙王 仍給升 糧安置惡處 至七年 有唐國欽州熟崑崙到彼 便被偷載 出來既歸唐國 逢本朝學生阿倍仲滿 便奏得入朝 請取渤海路歸朝 天子許之 給船糧發遣 十年三月 從登州入海 五月到渤海界 適遇其王大欽茂差使 欲聘我朝 即時同發 及渡沸海 渤海一船遇浪傾覆 大使胥要德等卅人 沒死 廣成等卒遺衆 到著出羽國。”(『續日本紀』 卷13, 聖武天皇 天平 11年(739) 11月)

45) 정기웅, 2020, 「역병의 대유행과 조정의 대응책」 『일본역사연구』 53, 31쪽.

瘴(역병)에 걸려 사망하고, 平郡廣成을 포함한 4명만 생존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90여 명이나 역병에 걸려 사망한 점에 주목하면, 734년 10월에唐을 출발한 일본의 견당사 일행은 당에서부터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46)</sup>

이처럼 신라, 당, 일본 사이에는 활발한 교류와 함께 전염병도 공통적으로 유행하였다.

### 3. 736~737년의 일본 대역병과 신라 성덕왕의 죽음

8세기 전반 일본에서 가장 크게 유행했던 737년 대역병의 경우, 대부분 736년에 신라로 일본의 遣新羅使가 파견되었다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737년에 방환된 사건과 관련시켜, 신라를 역병의 발원지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續日本紀』 기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H-①. 戊寅(28일) 從 5位 下 阿倍朝臣繼麻呂를 遣新羅大使로 삼았다.<sup>47)</sup>

H-②. 丙寅(17일) 遣新羅使 阿倍朝臣繼麻呂 등이 조정에 배알했다.<sup>48)</sup>

H-③. 辛丑(27일) 遣新羅使 大判官 從 6位 上 壬生使主宇太麻呂와 少判官 正 7位 上 大藏忌寸麻呂 등이 入京했다. 大使 從 5位 下 阿倍朝臣繼麻呂가 津嶋(대마도)에서 정박 중에 죽었다. 副使 從 6位 下 大伴宿禰三中은 病에 걸려 入京하지 못했다.<sup>49)</sup>

H-④. 己未(15일) 遣新羅使가 “新羅國이 常禮를 잃고 사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시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5位 이상과 6位 이하의 官人 총 45인을 內裏로 불러 의견을 말하도록 하였다. 丙寅(22일) 諸司에서 의견을 알리는 表를 올렸다. 혹은 “사신을 파견하여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고 하였고, 혹은 “병사를 보내어 정벌해야 한다”고 하였다.<sup>50)</sup>

46) 이장웅, 2020, 「8세기 전반 신라, 발해, 일본의 외교 경쟁과 재난」 『東아시아古代學』 59, 73쪽.

47) “戊寅 以從五位下阿倍朝臣繼麻呂 爲遣新羅大使.”(『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8年(736) 2月)

48) “丙寅 遣新羅使阿倍朝臣繼麻呂等拜朝.”(『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8年(736) 4月)

49) “辛丑 遣新羅使大判官從六位上壬生使主宇太麻呂 小判官正七位上大藏忌寸麻呂等入京 大使從五位下阿倍朝臣繼麻呂泊津嶋卒 副使從六位下大伴宿禰三中染病不得入京.”(『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9年(737) 春正月)

50) “己未 遣新羅使奏新羅國失常禮不受使旨 於是召五位已上并六位已下官人摠冊五人于內裏 令陳意見 丙寅 諸司奏竟見表 或言 遣使問其由 或言發兵加征伐.”(『續日本紀』 卷12, 聖武

- H-⑤. 壬子(8일) 律師 道慈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道慈가 天勅을 받들어 이 大安寺에 머무는데, 절을 지은 이래로 이 伽藍에 재앙이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사사로이 淨行하는 승려 등을 청해 매년 『大般若經』 1부 60卷을 읽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록 천둥소리가 나더라도 재해를 입은 바가 없었습니다. 청컨대 지금 이후로는 諸國에서 바친 調와 庸 각 3段的의 물품을 취하여 布施에 충당하게 하고, 승려 150명을 청해 이 경전을 읽게 하소서. 앞드러 바라건대 절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켜서 聖朝를 평안하게 하고, 이러한 공덕을 영원히 恒例로 삼게 하소서.” 勅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 癸亥(19일) 大宰府 管內的 諸國에서 疫瘡이 유행하여 百姓이 많이 죽었다. 詔를 내려 部內的 여러 神社에 폐물을 바쳐 기원하게 했다. 또, 가난하고 疫瘡이 든 집을 구휼하고, 아울러 湯藥을 지급하여 치료하게 하였다.<sup>51)</sup>
- H-⑥. 초하루 甲戌 日蝕이 있었다. 승려 600인을 청해 궁중으로 불러서 『大般若經』을 읽게 하였다. 壬辰 다음과 같은 詔를 내렸다. 4월 이후 疫病과 가뭄이 함께 횡행하니 밭과 논의 모가 바짝 말랐다. 이에 山川에 기도하고 제물을 올려 神祇에게 제사를 지내도 효험이 없어 지금까지 여전히 고통이다. 짐이 부덕하여 실로 많은 재앙이 이르게 하니, 생각건대 너그럽고 인자함을 베풀어 민의 우환을 구하고자 한다. 마땅히 國郡에게 명을 내려 억울한 獄事를 살피 기록하고, 백골을 덮고 썩은 살을 문으며, 술을 금하고 짐승을 잡지 못하게 하라. 高年(80세 이상)인 자, 鰥寡孀獨 및 京內的 僧尼와 男女가 疾로 누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에게는 헤아려 賑給을 더하라. 또 널리 文武 職事(현직자) 이상에게 물품을 내려라. 天下에 大赦한다.<sup>52)</sup>
- H-⑦. 초하루 甲辰 조화를 폐했다. 百官의 官人들이 疫病을 앓았기 때문이다.<sup>53)</sup>
- H-⑧. 癸卯(2일) 4畿內, 2監, 7道 諸國에 명하여 僧尼들이 淸淨하게 沐浴하고 한 달 안에 2·3번 『最勝王經』을 읽게 하였다. 또 그 달의 6齋日에는 殺生을 금하게 했다.<sup>54)</sup>

天皇 天平 9年(737) 2月)

- 51) “壬午 律師道慈言 道慈奉天勅住此大安寺 修造以來 於此伽藍恐有災事 私請淨行僧等 每年令轉大般若經一部六百卷 因此 雖有雷聲 無所災害 請自今以後 撮取諸國進調庸各二段物以充布施 請僧百五十人令轉此經 伏願 護寺鎮國平安聖朝 以此功德永爲恒例 勅許之 … 辛酉 參議民部卿正三位藤原朝臣房前薨 … 癸亥 大宰管內諸國 疫瘡時行 百姓多死 詔奉幣於部內諸社以祈禱焉 又賑恤貧疫之家 并給湯藥療之.”(『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9年(737) 夏4月)
- 52) “甲戌朔 日有蝕之 請僧六百人于宮中 令讀大般若經焉 壬辰 詔曰 四月以來 疫早並行田苗 焦萎 由是 祈禱山川 奠祭神祇 未得効驗 至今猶苦 朕以不德實致茲災 思布寬仁以救民患 宜令國郡審錄冤獄 掩骼埋胔 禁酒斷屠 高年之徒 鰥寡孀獨 及京內僧尼男女 臥疾不能自存者 量加賑給 又普賜文武職事以上物 大赦天下.”(『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9年(737) 5月)
- 53) “甲辰朔 廢朝 以百官官人患疫也.”(『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9年(737) 6月)

H-⑨. 이해 봄에 疫瘡이 크게 일어났다. 처음에는 筑紫에서 발생하여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미치니, 公卿 이하 天下의 百姓들이 잇달아 죽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sup>54)</sup>

H-①에서 일본은 736년 2월에 견신라사를 임명하였고, H-②에서 이들은 4월에 왕경을 출발하여 신라로 향했다. 그런데 이들은 신라에서 방환된 후 H-③에서 737년 정월에 大判官과 少判官은 일본에 무사히 귀국하여 왕경에 들어왔지만, 大使인 阿倍朝臣繼麻呂는 귀국 도중 津嶋(대마도)에 정박하고 있을 때 죽었고, 副使 大伴宿禰三中은 병에 감염되어 왕경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러한 『續日本紀』 기록만을 보면, 일본의 견신라사 일행이 신라에 체류하던 시기에 역병에 걸렸고, 귀국길에는 심각하게 유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萬葉集』 卷15 중 「遣新羅使歌群」으로 불리는 노래들을 통해 이때 사신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복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736년 4월에 일본 왕경을 출발하여 신라로 파견된 견신라사 일행들은 일본 열도를 벗어나기 이전인 8월경(7월 7일 이후)에 이미 壹岐嶋에서 鬼病(역병)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737년 역병의 원인은 신라로 볼 수 없다고 한다.<sup>56)</sup>

H-④에 의하면, 736년 신라에 파견된 일본 사신들은 신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737년에 귀국하여 “신라국이 常禮를 잃고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일본 조정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분개하였다. 이는 735년에 일본에서 신라 사신이 방환당한 사건에 대해 신라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거나, 737년에 성덕왕이 승하한다는 점에서 736년 당시 신라 국내 사정이 어려워 입국이 허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 사신들이 역병에 감염된 상태로 신라에 입국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방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H-⑤에 의하면, 일본에서 737년 4월에 『大般若經』을 독송하게 하였지만, 역병이 역시 大宰府 管内의 여러 國들에 창궐하여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 이에 部内の 여러 神社에 餼물을 바쳐 기원하였으며, 疫瘡이 든 집을 구휼하고 湯藥을

54) “癸卯 命四畿內二監及七道諸國 僧尼清淨沐浴 一月之內二三度令讀最勝王經 又月六齋日 禁斷殺生.”(『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9年(737) 8月)

55) “是年春 疫瘡大發 初自筑紫來 經夏涉秋 公卿以下天下百姓 相繼沒死不可勝計 近代以來 未之有也.”(『續日本紀』 卷12, 聖武天皇 天平 9年(737) 12月)

56) 정기용, 2019, 「고대 일본의 역병과 대응책 연구 - 737년 역병을 중심으로」, 고려대 사학과 석사논문, 20~24쪽.

지급하여 치료하였다. H-⑥에서 737년 5월에는 승려 600인을 청해 궁중으로 불러서 『大般若經』을 독송하게 하였고, 山川에 기도하고 하늘과 땅의 신을 통칭하는 神祇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賑給하고 大赦를 시행하였다. 곧, 조세와 부역을 면제시켜 주는 등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토착 신앙과 불교를 포함한 종교 대책도 함께 실시한 것이다.

737년 일본의 대역병도 가뭄 및 기근(가난)과 함께 발생하였고, 피해가 더욱 커지면서 大宰府를 넘어 6월경에는 畿内와 東海道 지역까지 역병이 확산되었으며, H-⑦에서 거의 모든 부서의 관리들이 역병에 감염되어 조정에서 조회도 열 수 없었다. 특히 종 5위 하 이상의 관리 92명 중 40%에 해당하는 36명의 관리들이 역병으로 사망하였고, 당시 정권의 핵심 세력이었던 후지와라(藤原) 4형제(武智麻呂, 房前, 宇合, 麻呂)도 모두 역병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 결국 738년에는 역병에서 살아남은 橘諸兄에 의한 새로운 정권이 성립하였고, 740년에 聖武天皇은 역병이 창궐했던 平城京에서 벗어나 恭仁京으로 遷都까지 단행하게 된다.

H-⑧에서는 737년 8월에 『最勝王經』을 여러 번 읽게 하고, 6齋日에는 殺生을 금하게 하였다. 『最勝王經』은 앞서 B-①에서 성덕왕 3년(704)에 당에서 신라로 유입된 것인데, 일본에서도 유행한 것이다. 또한, 이 기록으로 보아 『最勝王經』 유입과 함께 이루어진 B-③ 성덕왕의 殺生을 금하라는 교서도 역병의 창궐에 의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H-⑨의 737년 주요 사건을 요약하는 『속일본기』 是年條에서는, 疫瘡이 봄에 筑紫에서 발생하여 여름과 가을까지 유행하여 公卿부터 百姓까지 죽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지금까지 역병 중 최악이었다고 기록하였다. 이 737년 대 역병에 대해서는 현재의 천연두(smallpox)에 해당하는 痘瘡이었다는 견해가 통설이지만,<sup>57)</sup> 홍역에 해당하는 麻疹이라는 견해와,<sup>58)</sup> 麻疹과 痘瘡이 함께 유행하였다는 견해도<sup>59)</sup> 있다.

손님, 마마 등의 인격신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두창은 문헌에 痘瘡 외에 赤斑瘡, 疱瘡, 疱瘡, 豌豆瘡, 痘疾, 痘疹, 痘疫, 痘患, 痘候, 天痘, 天瘡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sup>60)</sup> 두창은 전염성이 강하고 사망률이 높은 큰 돌림병으

57) 細井浩志, 2017, 『疾病と神佛』 『自然災害と疾病』, 竹林舎(安田政彦 編), 335쪽.

58) 三井駿一, 1969, 『麻疹の歴史』, 奥野良臣·高橋理明 編, 『麻疹·風疹』, 朝倉書店.

59) 富士川游 著, 1904, 『日本醫學史』, 裳華房(박경, 이상권 共譯, 2006, 『日本醫學史』, 흥인문화사).

로,<sup>61)</sup>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중국을 거쳐 신라에 들어와 聖德王 36년(736)경 일본에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62)</sup> 최근에는 백제의 불교가 6세기 중·후반에 왜에 전해져 정착되는 과정에서 痘瘡도 함께 왜에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63)</sup>

한편, 이러한 전파 경로와는 반대로 736~737년 일본의 견신라사 일행이 일본九州 지역에서 감염되었고, 신라에 도착하여 경주에 역병을 전파시켜 왕의 從弟인 김상을 비롯하여 성덕왕까지 사망시켰다는 견해도 있다.<sup>64)</sup> 이 견해는 성덕대왕 신종의 주조가 역병으로 사망한 성덕왕의 원령을 위무하기 위함이라고까지 추정하였다. 다만 이때에도 역시 신라쪽 사료에서 역병의 발생을 직접 보여주는 기록은 없다.<sup>65)</sup>

### III. 전염병 퇴치 의례와 수로부인

이번 장에서는 2장에서 살핀 신라 성덕왕 시기의 역병을 어떻게 퇴치하고자 했는지를 의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덕왕 직전 시기까지 신라의 역병에 대한 인식과 그 퇴치 의례로 볼 수 있는 모습을 간단히 살펴본 후, 본격

60) 李英澤, 1980, 「우리나라 痘瘡에 대한 醫史學的 研究—우리나라 史書 및 古典醫書를 중심으로」 『中央醫學』 38, 277-278쪽.

61) 먼저 점이 생겼다가 부어오르고 灌漿되는 것이 마치 꽃봉오리가 피는 것 같고, 7일이 지나면 收靨, 脫痂하는 것이 마치 꽃이 시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天花’라고도 하고, 瘡形이 콩과 같기 때문에 두창이라 했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두창이 오면 고열을 동반하고 얼굴을 중심으로 온몸에 김붉은 반점이 난알처럼 돋는다. 두창은 특이적인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전신 감염증이다. 잠복기간은 7-19일(대개 10-14일)이며, 권태감, 40°C에 이르는 고열, 심한 요통, 두통 그리고 구토와 복통 같은 전구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한다(오명돈, 2007, 「두창(천연두)」 『감염학』, 군자출판사(대한감염학회), 819-821쪽).

62) 전종휘, 1993, 「전날의 마마(痘瘡)와 그 예방」 『醫史學』 2-2, 122쪽; 金斗南, 1981, 「痘瘡 장승考—朝鮮時代의 痘瘡對策과 장승」 『한국민속학』 14, 61쪽.

63) 이장웅, 2021, 「백제 불교의 일본 전파와 역병」 『동아시아고대학』 63.

64) 榮原永遠男, 2010, 「遣新羅使と痘瘡」 『日本古代の王權と社會』, 塙書房.

65) 이와 관련된 『삼국사기』의 기록은 “冬十一月 遣從弟大阿滄金相朝唐 死于路 帝深悼之 贈衛尉卿 … 狗登在城鼓樓 吠三日.”(『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聖德王 35年(736)과 “王薨 諡曰聖德 葬移車寺南.”(『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聖德王 36年(737)) 뿐이다.

적으로 성덕왕 시기를 검토하고자 한다.

- J-①. 3월에 왕이 疾에 걸렸는데 의술과 기도도 효과가 없었으므로 皇龍寺에서 百高座를 열어서 승려들을 모아 『仁王經』을 강론하게 하고, 100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度僧)을 허락하였다.<sup>66)</sup>
- J-②. 大臣을 祖廟에 보내 致祭를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 某는 머리를 조아려 再拜하면서, 삼가 太祖大王(星漢), 眞智大王, 文興大王, 太宗大王, 文武大王의 神靈께 말씀드립니다. 某는 텅 비고 경박한 재주로 숭고한 기반을 이어 지키느라 잠도 못자고 걱정하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잠시도 편안히 쉴 틈이 없습니다. 종묘의 지켜 주심과 하늘과 땅이 복을 내려주심에 힘입어 사방이 안정되고 백성들이 화목하며 異域에서 오는 손님들이 배로 보물을 실어 바치고, 형벌과 송사가 그쳐 지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금이 임하시는 데 道를 잃고, 하늘이 살피시는데 義가 어그러져, 별의 형상에 괴변이 나타나 빛을 잃고 침침해지니 멀리 깊은 언덕과 계곡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삼가 某 관직의 某를 보내 변변치 못한 물품을 진열하여 여기 계신 듯한 신령 앞에 정성을 올립니다. 없드려 바라우건대 미약한 정성을 밝게 살피시고 하찮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四時의 기후를 순조롭게 하시고 五事의 거둠에 잘못이 없게 하시옵소서. 농사가 풍년이 들고 疫癘가 사라지며 입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예의가 갖추어져 안팎이 편안하고 도적이 사라지며 후손들을 위해 업적을 남겨 오래도록 많은 복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삼가 아뢰옵니다.”<sup>67)</sup>
- J-③. 다음해 壬午(682) 5월 초하루(어떤 책에는 天授 원년(690년)이라고 했으나 잘못이다)에 海官 波珍浪 朴夙淸이 아뢰기를, “동해 중에 작은 산이 떠서 感恩寺를 향해 오는 데, 물결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이를 이상히 여겨 日官 金春質[또는 春日]에게 점을 치도록 하였다. ... 왕이 행차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月城의 天尊庫에 간직하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病이 나으며, 기쁨에는 비가 오고 장미는 개며, 바람이 찾아들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이를 萬波息笛이라 이름하여 國寶로 삼았다. 孝昭大王代에 이르러 天授 4년 癸巳(693)에

66) “三月 王疾 醫禱無效 於皇龍寺設百高座 集僧講仁王經 許度僧一百人.”(『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善德王 5年(636))

67) “遣大臣於祖廟 致祭曰 王某稽首再拜 謹言太祖大王·眞智大王·文興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之靈 某以虛薄 嗣守崇基 寤寐憂勤 未遑寧處 奉賴宗廟護持 乾坤降祿 四過安靜 百姓雍和 異域來賓 航琛奉職 刑淸訟息 以至於今 比者 道喪君臨 義乖天鑒 怪成星象 火宿沉輝 戰戰慄慄 若墜淵谷 謹遣使某官某 奉陳不腆之物 以虔如在之靈 伏望昭察微誠 矜恤眇末 以順四時之候 無愆五事之徵 禾稼豐而疫癘消 衣食足而禮義備 表裏淸澆 盜賊消亡 垂裕後昆 永膺多福 謹言.”(『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神文王 7年(687) 夏4月)

失禮郎이 살아 돌아온 기이한 일로 해서 다시 萬萬波波息笛이라고 하였다.<sup>68)</sup>

J-④. 봄 2월에 흰 기운이 하늘에 가득하고 동쪽에 혜성이 나타났다. 唐에 사신을 보내 조회에 참석하고 方物을 바쳤다. 가을 7월에 동해의 물이 핏빛이 되었다가, 5일이 지나 다시 예전처럼 되었다. 9월에 동해에서 水戰(해저 지진)이 벌어졌는데 소리가 왕도에까지 들렸다. 무기고 안의 북과 피리가 저절로 울었다.<sup>69)</sup>

J-①에서 선덕여왕(재위 632~647) 시기에는 왕이 병들자 먼저 의술로 치료하고, 다음에는 기도하였으며, 이들이 모두 효험이 없자 皇龍寺에서 百高座를 열어 승려들을 모아 『仁王經』을 강론하였다.

J-②는 신문왕(재위 681~692)이 祖廟에 신하를 보내 제사를 올리면서 읽은 제문인데, 여기에는 조상신에게 四時의 기후를 순조롭게 하여 농사가 풍년이 되고 疫癘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앞의 머리말에서 가뭄이 기근을 초래하고, 기근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역병의 유행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는데, 이 기록을 통해 “四時의 기후 조화 → 농사의 풍흉 → 역병”으로 이어진다는 신라인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隋 煬帝 大業 6년(610)에 巢元方이 편찬한 『諸病源候論』에서는 시기에 맞지 않는 기후나 이상 기상 현상을 역병의 원인으로 인식했고,<sup>70)</sup> 추위나 더위가 적절하지 않은 것도 역병의 원인으로 언급하였다.<sup>71)</sup>

J-③의 『三國遺事』 萬波波息笛조에서는 신문왕과 효소왕(재위 692~702) 시기에 만과식적을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는 개며,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평온해졌다고 한다. J-④의 효소왕 8년(699)에는 동해물이 핏빛이 되고 동해에 해저 지진이 일어나 소리가 왕도에까지 들렸는데, 무기고 안에서 북과 피리가 저절로 울었다고 한다. 이는 災變을 해소해준다는 J-③의 『삼국유사』 만과식적조의 주술적인 행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성덕왕 즉

68) “明年壬午五月朔[一本云天授元年 誤矣] 海官波玆浪朴夙淸奏曰 東海中有小山浮來向感恩寺 隨波往來 王異之 命日官金春質[一作春日]占之 … 駕還以其竹作笛藏於月城天尊庫 吹此笛則兵退病愈 早雨雨晴 風定波平 號萬波波息笛稱爲國寶 至孝昭王大代天授四年癸巳 因失禮郎生還之異 更封號曰万万波波息笛.”(『三國遺事』 卷2, 紀異2, 萬波波息笛)

69) “春二月 白氣竟天 星孛于東 遣使朝唐 貢方物 秋七月 東海水血色 五日復舊 九月 東海水戰 聲聞王都 兵庫中鼓角自鳴.”(『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孝昭王 8年(699))

70) “冬時應寒而反溫 此非其時而有其氣.”(『諸病源候論』 권7, 傷寒病諸候上)

71) “寒暑乖候 … 則民多疾疫.”(『諸病源候論』 권10, 疫癘病諸候)

위 직전인 신문왕과 효소왕 시기의 질병 퇴치 의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덕왕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의학과 관련된 관직들이 설치되고 있어 주목된다.

K-①. 봄 2월에 醫博士·筭博士를 각각 1명을 두었다. 3월에 새 궁을 창건하였다.<sup>72)</sup>

K-②. 醫學은 孝昭王 원년(692)에 처음 두어 學生을 가르쳤는데, 本草經·甲乙經·素問經·針經·脈經·明堂經·難經으로 業을 삼았다. 博士는 2명이다. ... 藥典은 景德王이 保命司로 고쳤고 후에 예전대로 회복되었다. 舍知는 2명, 史는 6명, 從舍知는 2명이다. 供奉醫師는 정해진 수가 없다. 供奉卜師는 정해진 수가 없다.<sup>73)</sup>

K-①에 의하면, 聖德王 16年(717)에 醫博士와 筭博士를 두었는데, 성덕왕 당시 지속적으로 이어진 天災地變과 함께 나타난 전염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에서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74)</sup> K-②의 『삼국사기』 職官志에 의하면, 醫學은 효소왕 원년(692)에 설치되어 『本草經』 등의 의학서들을 기초로 삼으면서 博士 2명을 두었다. 또한, 신라의 의료 기구로 藥典과 함께 供奉醫師와 供奉卜師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질병의 발생이 귀신에 의한 것으로 여겨졌던 당시 사회에서 醫師와 卜師가 巫(샤먼)의 직능에서 파생되어 비슷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잘 보여준다.<sup>75)</sup>

이제 본격적으로 성덕왕 시기의 전염병 퇴치 의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L-①. 神龍 2년 丙午(706)에 흉년이 들어 인민들의 굶주림이 심하였다. 이듬해 丁未(707) 정월 초하루부터 7월 30일까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곡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한 사람에 하루 3升으로 하였다. 일을 마치고 계산해보니 모두 30만 5백 석이었다. 왕이 太宗大王을 위해 奉德寺를 창건하고, 仁王道場을 7일 동안 열고 크게 사면하였다. 이

72) “春二月 置醫博士·筭博士各一員 三月 創新宮.”(『三國史記』卷8, 新羅本紀8, 聖德王 16年(717))

73) “醫學 孝昭王元年初置 教授學生 以本草經·甲乙經·素問經·針經·脈經·明堂經·難經爲之業 博士二人 ... 藥典 景德王改爲保命司 後復故 舍知二人 史六人 從舍知二人 供奉醫師無定數 供奉卜師 無定數.”(『三國史記』卷39, 雜志8, 職官中)

74) 金興三, 1998, 「新羅 聖德王의 王權強化政策과 祭儀를 통한 河西州地方 統治(上)」 『江原史學』 13·14合, 121쪽.

75) 辛鍾遠, 1992, 「古代的 日官과 巫」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50쪽.

때부터 비로소 侍中의 직을 두었다[어떤 책에는 孝成王 때의 일이라고 한다].<sup>76)</sup>

- L-②. 聖德王 때 純貞公이 江陵[지금의 溟州] 太守로 부임하는 길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었다(晝饋). ... 그 겉으로 한 老翁이 암소를 끌고 지나가다가 水路夫人의 말을 듣고 그 꽃을 꺾으면서 또한 歌詞를 지어 바쳤다. 그 翁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다시 이를 길을 가다가 또 臨海亭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晝饋), 바다의 용이 갑자기 부인을 끌고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 공이 어어지면서 땅을 쳐보아도 나오게 할 방법이 없었다. 다시 한 老人이 말하기를, “옛 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했으니, 이제 바다 속의 미물(傍生)인들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경내의 백성을 모아 노래(海歌)를 지어 부르면서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그 말을 따르니, 용이 부인을 받들고 바다에서 나와 바쳤다.<sup>77)</sup>
- L-③. 또 黃銅 12만근을 회사하여 부왕이신 聖德王을 위하여 큰 종 하나를 주조하고자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니, 그 아들 惠恭大王 乾運이 大曆 庚戌 12월에 有司에게 명하여 工人들을 모아 능히 그것을 완성하여 奉德寺에 안치하였다. 절은 곧 孝成王 開元 26년(738) 戊寅에 부왕인 聖德大王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한 것이다.<sup>78)</sup>
- L-④. 이때 당 황실의 공주가 疾病에 걸려 高宗이 三藏에게 구해줄기를 청하였는데 惠通을 추천하여 대신하게 하였다. ... 두 색이 함께 이를 쫓게 하니 갑자기 蛟龍이 달아나서 병이 나았다. 龍은 혜통이 자기를 쫓아낸 것을 원망하여 本國의 文仍林에 와서 인명을 더욱 해쳤다. 이때에 鄭恭이 당에 사신으로 갔는데 혜통을 보고 일러 말하기를 “스님이 쫓은 毒龍이 본국으로 돌아와害人 삼하니 빨리 가서 그것을 없애 주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정공과 함께 麟德 2년(665) 乙丑에 본국으로 돌아와 그것을 쫓아버렸다. 용은 또 정공을 원망하여 이에 버드나무로 변하여 정공 집의 문 밖에 나 있었다. 정공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그 무성한 것을 기러서 매우 사랑하였다.

76) “第三十三聖德王神龍二年丙午 歲禾不登人民飢甚 丁未正月初一日至七月三十日 救民給租 一口一日三升爲式 終事而計三十萬五百碩也 王爲太宗大王勸奉德寺 設仁王道場七日大赦 始有侍中職[一本系孝成王].”(『三國遺事』 卷2, 紀異2, 聖德王)

77) “聖德王代 純貞公赴江陵太守[今溟州]行次海汀晝饋 ... 傍有老翁牽犂牛而過者 聞夫人言折其花 亦作歌詞獻之 其翁不知何許人也 便行二日程 又有臨海亭晝饋次 海龍忽擄夫人入海 公顛倒躡地計無所出 又有一老人告曰 故人有言衆口鑠金 今海中傍生何不畏衆口乎 宜進界內民作歌唱之以杖打岸 則可見夫人矣 公從之 龍奉夫人出海獻之.”(『三國遺事』 卷2, 紀異2, 水路夫人)

78) “又捨黃銅一十二萬斤 爲先考聖德王欲鑄巨鍾一口 未就而崩 其子惠恭大王乾運以大曆庚戌十二月 命有司鳩工徒乃克成之 安於奉德寺 寺乃孝成王開元二十六年戊寅 爲先考聖德大王奉福所創也.”(『三國遺事』 卷3, 塔像4, 皇龍寺鍾 芬皇寺藥師 奉德寺鍾)

神文王이 죽고 孝昭王이 즉위하여 山陵을 닦고 장사지내는 길을 손질하였는데, 정공의 버드나무가 길을 가로 막아 宥司가 배어 버리려 하였다. ... 王女가 갑자기 병이 들자 조서를 내려 혜통이 치료하게 하였는데, 병이 나아지니 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혜통은 인하여 말하였다. “정공은 毒龍의 해를 입어 죄 없이 나라의 형벌을 받았 습니다.” 왕이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후회하면서 이에 정공의 처자를 면죄하고, 혜 통을 國師로 삼았다. 용은 이미 정공에게 원수를 갚고 機張山에 가서 熊神이 되었는데, 해독을 끼치는 것이 더욱 심하여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했다. 혜통이 산 속에 가서 용을 깨우쳐 不殺戒를 주자 용신의 해가 그쳤다.<sup>79)</sup>

- L-⑤. 당시 국왕(문무왕)은 百高座를 설치하고 『仁王經』 대회를 열어 두루 頌德을 찾았는데, 本州(원효의 고향인 상주)에서는 그를 추천하였으나 다른 승려들이 싫어하고 비방하므로 이에 참석할 수 없었다. 얼마 뒤 왕후가 종기를 앓았는데 약효가 없었을 뿐 아니라 왕자와 신하들이 모든 산천 靈祠에 기도를 했으나 효험이 없었다. 그때 어떤 巫覡이 타국으로 사람을 보내 약을 구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므로 사신을 唐에 보내 그 醫術을 구했는데, 가는 도중 물결을 헤치고 한 노인이 나타나 그 사신을 용궁으로 안내하였다. 그 궁전에는 鈐海라는 龍王이 있었는데, 사신에게 “너희 나라 왕의 부인은 靑帝의 셋째 딸이다. 우리 궁중에 옛날부터 『金剛三昧經』이라는 경이 있으니, 二覺이 圓通하여 보살행을 행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지금 부인에게 병이 있으니 이것을 壇上緣으로 삼아 이 경을 보내 그 나라에 유통시키고자 할 뿐이다.”<sup>80)</sup>

L-①의 『三國遺事』 聖德王조는 6년(707)에 흉년이 들어 인민들의 굶주림이 심하여 7년(707) 정월 초하루부터 7월 30일까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구휼했다는 내용, 太宗大王을 위해 奉德寺를 창건하고 『仁王經』에 기초한 護國法會로 百座講會로도 불렸던 仁王道場을 7일간 열며 크게 사면했다는 불교 관련 내용, 侍中의 직을 두기 시작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國難을 타개하기 위해 행한 인왕도량 기간이 7일임을 알려주는 유일한 예이다.<sup>81)</sup> 『인왕경』에 의거한 백고좌는 앞서 J-①에서 선덕여왕이 疾에 걸렸을 때인 636년에 황

79) 『三國遺事』 卷5, 神呪6, 惠通降龍.

80) “時國王置百座仁王經大會遍搜頌德 本州以名望學進之 諸德惡其爲人 謗王不納 居無何王之夫人嬰嬰癰腫 醫工絕驗 王及王子臣屬禱請山川靈祠無所不至 有巫覡言曰 苟遣人往他國求藥 是疾方瘳 王乃發使泛海入唐募其醫術 溟漲之中忽見一翁 由波濤躍出登舟 邀使人入海睹宮殿嚴麗 見龍王名鈐海 謂使者曰 汝國夫人是靑帝第三女也 我宮中先有金剛三昧經 乃二覺圓通示菩薩行也 今託仗夫人之病爲壇上緣 欲附此經出彼國流布耳.”(『宋高僧傳』 卷4, 唐新羅國皇龍寺元曉傳)

81) 김복순, 2010, 「신라의 백고좌법회」 『신라문화』 36, 90~91쪽.

룡사에서 행했고, L-⑤에서 문무왕(재위 661~681) 시기에도 행해진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진덕여왕 때에 中侍가 설치되었지만, 성덕왕의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 제도적 노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때 侍中이 설치된 것으로 기록하였다.

L-①의 『삼국유사』 성덕왕조에서는 성덕왕이 태종대왕을 위해 봉덕사를 창건한 것으로 기록하였지만, L-③의 『삼국유사』 皇龍寺鍾·芬皇寺藥師·奉德寺鍾조에 의하면, 봉덕사는 성덕왕이 죽은 다음해인 738년에 아들 효성왕이 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두 기록을 모두 중시한다면, 봉덕사는 성덕왕 때에 태종 무열왕의 원찰로 건립 공사를 착수했지만 완성되지 못했고, 효성왕이 즉위한 이듬해에 성덕왕의 원찰로 성격을 바꾸어 완공한 것이다. 신라 중대에 태종 무열왕과 성덕왕은 國人의 추대를 통해 왕위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L-②의 『三國遺事』 수로부인조에 보이는 純貞公은 경덕왕의 첫 번째 부인인 삼모부인의 아버지이면서, 上宰를 역임한 伊飡 金順貞으로 볼 수 있다.<sup>82)</sup> 『續日本紀』 권9 神龜 3년(726) 秋7月 戊子조에는 신라 사신이 일본에 가서 金順貞이 전년(725)에 죽었음을 알리자, 聖武天皇이 애도하는 조서와 함께 황색 비단과 綿을 보냈다는 기록이 전한다.<sup>83)</sup> 또 『續日本紀』 권33 寶龜 5년(774) 3월 癸卯조에는 上宰로 일본과의 외교에 힘썼던 金順貞의 孫인 金邕이 집정했다고 하였다.<sup>84)</sup> 그렇다면 수로부인은 성덕왕의 둘째 아들인 경덕왕의 첫 번째 부인인 삼모부인의 어머니이다.

수로부인 설화는 시간적 배경인 ‘점심 식사(晝膳)’를 제의에 올리는 음식으로 해석하고, 설화 내용을 제의의 口述 相關物로 파악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행한 合同 祭儀 행위로 보고 있다.<sup>85)</sup> 수로부인 설화에서 부

82) 전덕재, 1997, 「新羅 中代 對日外交의 推移와 眞骨貴族의 動向—聖德王~惠恭王代를 중심으로」 『韓國史論』 37,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 박남수, 2012, 「新羅 聖德王代 ‘上宰’ 金順貞과 對日交涉」 『신라사학보』 25.

한편, 성덕왕 4년(705) 1월에서 5년(706) 8월까지 중시를 역임한 信貞을 金順貞과 동일 인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김수태, 1996, 『신라 중대 정치사연구』, 일조각, 113쪽).

83) “戊子 金奏動等歸國 賜璽書曰 勅 伊飡金順貞 汝卿安撫彼境 忠事我朝 貢調使薩浪金奏動等奏稱 順貞以去年六月卅日卒 哀哉 賢臣守國 爲朕股肱 今也則亡 殲我吉士 故贈賻物黃繩一百疋 綿百屯 不遣爾續 式獎遊魂。”(『續日本紀』 卷9, 神龜 3년(726) 秋7月)

84) “對曰 本國上宰金順貞之時 舟楫相尋 常脩職貢 今其孫邕 繼位執政 追尋家聲 係心供奉 是以 請修舊好每相聘問 又三玄本非貢調之使 本國便因使次 聊進土毛 故不稱御調 敢陳便宜 自外不知。”(『續日本紀』 卷33, 寶龜 5년(774) 3月 癸卯)

인을 납치한 바다의 용(해룡)을 퇴치하고 부인을 구하는 행위는 L-⑤의 『宋高僧傳』에 기록된 원효 설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용이 병의 빌미인 역신과 관련된다는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노인의 지시에 의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막대기로 바닷가 언덕을 두드리면서 ‘海歌’라는 주술가를 부르는 행위를 통해 용을 위협하여 수로부인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治病 의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고위 관료를 강릉에 보내 治病 의례를 행한 사실은 앞서 살핀 B-③에서 성덕왕 4년(705)에 나라 동쪽 州郡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많이 流亡하여 사신을 보내 賑恤하였다는 기록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sup>86)</sup> 그리고 A-②와 ③에서 성덕왕 14년(715)과 15년(716)에 河西州(강릉) 龍鳴嶽의 居士 理曉를 불러 왕경의 林泉寺 연못가에서 비를 빌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때의 治病과 賑恤 이후 강릉 지역에 역병이나 가뭄을 퇴치하는 음양가와 같은 居士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L-④의 『三國遺事』 惠通降龍조는 질병의 원인으로 나타난 용을 쫓아내는 治病 활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惠通은 唐의 無畏 三藏에게 의술을 배워 蛟龍을 물리쳐 당 고종(재위 650~683) 공주의 병을 고쳐주었고, 麟德 2년(665)에 귀국하여 신라로 도망친 毒龍에 시달리는 자들을 치료해 주었으며, 신문왕(재위 681~692)의 등창을 낫게 하였다. 이후 효소왕(재위 692~702) 공주의 병을 고쳐주어 鄭恭의 억울한 죽음을 풀고 國師에 봉해졌다. 용은 정공에게 원수를 갚고 機張山에 가서 熊神이 되어 백성들을 더욱 심하게 괴롭혔고, 이에 惠通이 용을 깨우쳐 不殺戒를 주고 불교에 귀의시킨 후에야 해가 그쳤다. 이처럼 고대의 질병관은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蛟龍 등)이 몸 안에 들어오면 병이 발생하고, 이 귀신이 나가면 병이 낫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질병이 정신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으니, J-①, L-①·⑤ 등에서 보듯이 많은 질병이 불경 강론으로 치료되고 있다. 이 惠通降龍조를 분석하면서, 당에서 퇴치된 용이 신라의 수도로 오고, 다시 지방인 기장현에 가서 熊神으로 변이되어 해악을 끼쳤다는 것은 바로 전염병(疾疫)의 전파 경로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sup>87)</sup>

85) 서영대, 2002, 「水路夫人설화 다시 읽기」 『용, 그 설화와 문화』, 민속원, 204~216쪽.

86) 이기봉, 2011, 「新羅 聖德王代の 災異와 儒教政治」 『韓國史研究』 152, 14쪽에서는 신라 중대에 진흥관이 기근의 발생만으로는 파견되지 않았고, 기근으로 파생된 역질이나 도적 붐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보았다.

87) 노중국, 2011, 「『삼국유사』 惠通降龍조의 검토-질병 치료의 관점에서」 『신라문화학회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 卷54, 志8, 五行2, 金 大旱 부분에는 가뭄 기록과 함께 이러한 災異를 극복하기 위한 祈雨禮가 많이 수록되었다. 그 첫째 유형은 君主가 放避의 政事와 勤慎의 自省을 위주로 한 방식이다. 가뭄 재해에 대응하는 兩漢 시기의 避旱 禮制에 따라, 대외적으로 감옥의 문을 열어 죄수를 방면하고, 대내적으로 하늘에 죄인이라 正殿을 피하며, 식사에 반찬수를 줄이는 근신 조치를 시행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 비를 빌고 부처에 비를 기도하며 山川에 望祭로 기우하였다.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80세 이상의 노인을 봉양하는 양로연을 베풀었다. 둘째 유형은 조상과 민심에 호소하여 天心을 얻으려는 방식으로, 현종 2년(1011) 4월의 가뭄에 대하여 종묘에 비를 기도하고 시장을 옮기며 가축 도살을 금지하고 샷갓과 부채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억울한 죄수를 다시 심의하고 백성을 구휼하였다. 셋째 유형은 응험이 있는 도성 주변 5대 산천 祠廟(송악산, 東神堂, 여러 산천 神廟들, 朴淵)에 7일에 한 번씩 차례로 돌아가면서 기우제를 올리는 방식이다. 그래도 응감이 없으면 7일을 주기로 다시 비를 비는 再雩와 다시 7일을 더 되풀이하는 三雩까지 행했다. 넷째 유형은 무속적 주술 기우제, 다섯째 유형은 佛力에 기대어 誦經 禱雨, 여섯째 유형은 도교식 醮禮로 기우, 일곱째 유형은 유교적 祭天 祈雨 등 道佛儒巫가 복합화된 특징이 있다.<sup>88)</sup> 가뭄이 기근과 역병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역병 퇴치 의례도 이러한 기우 행위와 연관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퇴치 의례와 관련된 국가 제사를 지낸 장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M. 四城門祭의 첫째는 大井門, 둘째는 吐山良門, 셋째는 翫比門, 넷째는 王后梯門이다. 部庭祭는 梁部에서 지냈다. 四川上祭의 첫째는 犬首, 둘째는 文熱林, 셋째는 靑淵, 넷째는 樸樹이다. 文熱林에서는 日月祭, 靈廟寺 남쪽에서는 五星祭, 惠樹에서는 祈雨祭를 행하였다. 四大道祭는 동쪽의 古里, 남쪽의 簾并樹, 서쪽의 渚樹, 북쪽의 活併岐에서 지냈다. 壓丘祭와 辟氣祭도 지낸다. 위의 것들은 혹은 別制에 의해서, 혹은 水災나 旱災가 원인이 되어 행한 것들이다.<sup>89)</sup>

술발표논문집』 32, 45~52쪽.

88) 김일권, 2011, 『『고려사』 『오행지』의 자연학과 편찬 특성』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82~85쪽.

89) 『三國史記』 卷32 雜志1 祭祀.

M 자료는 『三國史記』祭祀志 신라의 끝 부분에 서술된 것으로, 別制(토착 전통에 기반을 둔 비정기적 제사들을 묶은 규정으로 추정), 水災, 旱災에 의해 지내는 제사들이라 하였으므로 別祀라고 통칭할 수 있다.<sup>90)</sup>

그중 四城門祭는 궁성인 月城의 네 성문(大井門, 吐山良門, 習比門, 王后梯門)에서 행한 제사로, 바깥에서 침입하는 疫神을 쫓기 위한 邪鬼塞地의 신을 궁성에서 祭饗하는 것으로 보인다. 部庭祭는 본래 6촌에서 행했던 제의에서 유래한 梁部(喙部)의 터주대감신에 대한 제사로 보인다. 四川上祭는 네 물가(犬首(犬首谷門)에서는 입춘 후에 風伯祭도 행해짐), 文熱林(日月祭도 행해짐), 靑淵(樸樹)에서 기우제나 기청제를 지내던 곳이고, 日月祭는 文熱林에서, 五星祭는 靈廟寺 남쪽에서, 祈雨祭는 惠樹에서 지냈다.

四大道祭는 왕경 네 곳의 큰 길(동쪽 古里, 남쪽 簾并樹, 서쪽 渚樹, 북쪽 活併岐)에서 지내는 제사로, 바깥에서 침입하는 疫神을 쫓기 위한 邪鬼塞地의 신을 도로에서 祭饗하는 일본의 道饗祭나 조선 시대의 驅儺 의식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壓丘祭는 당이나 일본으로 사신을 보낼 때 길을 떠나면서 지내는 道祖神 제사로, 중국에서 신앙되던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蘇塗와 결부되어 長柵으로 발전하고, 또 疫神 沮止의 軼祭 등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91)</sup> 辟氣祭는 辟邪儀式的 일종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제사이다.

이들 제사가 신라에 정착된 시기에 대해서는 당의 농경 제사와 비교하여 정관령 단계(선덕여왕 6년(637))에서 개원 25년령(성덕왕 36년(737)) 단계 사이로 추정할 견해가 있으므로,<sup>92)</sup> 성덕왕 시기에는 모두 정착되어 행했던 국가 제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볼 때, 신라 성덕왕 시기의 전염병 퇴치 의례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장소로는 왕성의 네 성문과 왕경의 사방 도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기존 토착 신앙의 성지로 볼 수 있는 숲(文熱林), 나무(樸樹, 惠樹, 簾并樹), 계곡(犬首(谷門)), 연못(大井門, 靑淵, 渚樹), 갈래길(活併岐)에서도 기우제 등 災變 퇴치 의례가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염병 퇴치 의례의 시기와 제수로 사용되었을 동물 등 제

90) 최광식, 1996, 「新羅와 唐의 大祀·中祀·小祀 비교연구」 『韓國史研究』 95, 9쪽.

91) 金東旭, 1983, 「新羅의 祭典」 『新羅民俗의 新研究(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4)』, 31~34쪽.

92) 채미하, 2006, 「신라의 농경제사와 '별제(別祭)」 『國史館論叢』 108, 12~19쪽.

사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N-①. 靖宗 6년(1040) 11월 무인에 다음과 같은 詔를 내렸다. “짐이 즉위한 후 好生할 것을 마음먹고 새, 짐승, 곤충까지 모두 仁恩을 입게 하려 하였다. 그런데 歲終에 행하는 儺禮에 닭을 다섯 마리씩이나 찢어 죽여 疫氣를 驅逐하려 하니 짐의 마음이 몹시 아프다. 가능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하라” 이에 司天臺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瑞祥志』에서 말하기를, ‘季冬의 달(12월)에 해당 부서에 명하여 大儺를 행할 때에 두루 土牛를 찢어 寒氣를 보내게 한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각각 길이 1척, 높이 5촌 되는 황색의 土牛 네 마리를 만들어 닭을 찢어 죽임을 대체하기 바랍니다.” 이에 따랐다.<sup>93)</sup>

N-②. 『禮記』 月令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季春의 달(3월)에, 나라에 명하여 儺禮를 행하는데, 九門(모든 문)마다 허수아비를 찢어 갈라 春氣가 마쳤음을 보인다. 仲秋의 달(8월)에, 天子가 곧 나라를 행하여 秋氣를 도달하게 한다. 季冬의 달(12월)에, 해당 有司에게 명하여 大儺를 행하는데, 모든 문에 희생을 찢어 올리고 土牛를 만들어 寒氣를 보내게 한다.” 『祠令』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季冬(12월) 그믐에 本堂에서 儺를 지내고 宮門 및 성의 사방 희생을 찢어 제사지내는데, 각각 수탉 한 마리를 쓴다. 하루 전날에 미리 소속 관사에 보고하여 아뢰다.”<sup>94)</sup>

N-①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疫氣를 驅逐하는 大儺에 『天地瑞祥志』의 기록을 반영한 의례를 행했다. N-②의 『天地瑞祥志』 원문에는 『禮記』 月令을 인용하여 ‘季冬(12월)에 有司에게 명하여 大儺를 거행하는데 모든 문에 희생을 찢어 올리고 土牛를 만들어 寒氣를 보내게 한다’는 기록이 있다.

『禮記』 月令은 換節期에 계절 질병을 방지하려는 送氣와 迎氣 의례의 성격을 지니고, 『祠令』은 당 禮部에서 사용하던 세부 시행령이다. 陰氣가 성하면 疫鬼가 일어나 질병과 음해를 일으키는데, 儺禮는 이를 예방하고 억제하려는 목적을 지닌 역귀 방제 의례이다. 특히 季冬의 나례는 계절이 바뀌면서 한 해가 바뀌

93) “靖宗六年十一月戊寅 詔曰 朕即位以來 心存好生 欲使鳥獸昆虫 咸被仁恩 歲終儺禮 磔五雞 以驅疫氣 朕甚痛之 可貸以他物 司天臺奏 瑞祥志云 季冬之月 命有司大儺 旁磔土牛 以送寒氣 請造黃土牛四頭 各長一尺高五寸 以代磔雞 從之.”(『高麗史』 卷64, 志18, 禮6, 軍禮季冬大儺儀)

94) “禮記月令曰 季春之月 命國儺 九門磔穰 以畢春氣 仲秋之月 天子乃儺 以達秋氣 季冬之月 命有司大儺 旁磔出土牛 以送寒氣 祠令曰 季冬晦 堂儺儺牲 於宮門及城四門 各用雄鷄一 將預前一日 所司奏聞.”(『天地瑞祥志』 卷20, 祭禮 儺)

는 때이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여 大儺라고 불렀다. 가장 음기가 성한 계동의 끝 무렵이자 그 해의 마지막이므로, 신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묵은 해의 악귀과 역질을 모두 몰아내는 대규모 의식으로 거행된 것이다.<sup>95)</sup>

이 『天地瑞祥志』에 대해서는 신라 문무왕 시기 六陣兵法에 능했던 薛秀眞이 저술했다는 견해가 있었지만,<sup>96)</sup> 唐 高宗 乾封 원년(666)에 太史 薩守眞이 저술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책이 신라인의 저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후 일본과 고려에서 널리 활용된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신라 중대에 이미 유입되어 일본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sup>97)</sup>

그렇다면 신라 성덕왕 시기의 전염병 퇴치 의례에 대하여, 그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여기에는 大儺를 행한 시기가 12월 그믐이고, 희생과 함께 土牛를 만들었다는 부분이 주목된다. 이는 일본에서 12월 그믐날에 행했다는 道饗祭와 함께 대규모의 액막이 제사인 大祓과도 연결된다. 또한, 앞서 살핀 C-③의 『속일본기』에는 신라 성덕왕 시기인 706년에 土牛를 만들어 大儺를 행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로 보면, 수로부인 설화 속에서 소를 모는 老翁의 모습은 『속일본기』에 전염병 퇴치 의례인 구나 의식에 사용된 土牛, 『天地瑞祥志』에서 희생 의례에 사용된 土牛와도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고대 일본에서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平城宮 도처에 장소를 마련하여 제사를 행했다. 神祇令에는 6월과 12월의 그믐날에 道饗祭가<sup>98)</sup> 열린다고 하였다. 또 6월, 12월의 그믐날에는 백관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액막이 제사인 大祓도 궁의 정문인 朱雀門 앞에서 행해졌다.<sup>99)</sup> 이는 궁성의 네 경계에서 귀신(나쁜 기운)이 경내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 청정을 지키려는 행위였다. 따라서 신라 궁성의 네 성문에서 행해진 四城門祭와 비교된다.

상스럽지 못한 것을 풀어 없애는 의례인 大祓에는<sup>100)</sup> 중앙에서 매년 二季의

95) 김일권, 2017, 「고려시대 천지서상지에 나타난 한중 고대 천지상서의 교용적 자연학」 『耽羅文化』 56, 176~180쪽.

96) 權惠永, 1999, 「『天地瑞祥志』 편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白山學報』 52.

97) 김일권, 2002, 「『天地瑞祥志』의 역사적 의미와 사료적 가치-撰者에 대한 재검토와 『高麗史』 所引 記事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26, 262~266쪽.

98) 『延喜式』 卷1의 延喜式四時祭式; 『神祇令義解』 道饗祭 참조.

99) 『延喜式』 臨時祭 참조.

100) “凡六月十二月晦日大祓(謂 祓者 解除不祥也).”(『令義解』 神祇令 大祓)

晦日(6월과 12월 그믐)에 국가의 중요 제사로 행한 恒例 大祓이 있고, 지방 각국의 國衙에서 부정기로 개최한 諸國大祓, 大嘗祭 전후나 齋宮의 卜定과 群行, 역병의 유행이나 재앙으로 인한 변고 등이 생겼을 때 필요에 따라 행해진 臨時大祓이 있다. 『養老神祇令』에 의하면, 6월과 12월 그믐의 大祓에는 神祇官인 中臣이 御祓麻(신기 제사에서 사용하는 삼베)를 올리고, 東西文部가 祓刀를 올리기와 祓詞 읽기 의례를 담당하였으며, 이를 마치고 百官 男女가 祓所에 모이면, 中臣이 祓詞를 선포하고 卜部가 解除하였다.<sup>101)</sup> 『法曹類林』에 인용된 『式部記文』에 의하면, 6월과 12월 그믐에 백관이 집결하는 大祓儀가 大伴門(주작문)과 壬生門 사이의 大路에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였으므로,<sup>102)</sup> 백관 大祓의 祭場은 궁성의 남문인 주작문 주변이었다.<sup>103)</sup>

이처럼 비록 신라인이 직접 남긴 기록은 많지 않지만, 『속일본기』를 비롯한 일본의 자료와 『삼국유사』의 설화 자료들을 재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신라 성덕왕 시기의 전염병 퇴치 의례 모습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복원할 수 있다고 본다.

#### IV. 맺음말

신라 정치사에 있어서 성덕왕 시기는 중대의 전성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삼국사기』에는 이 시기에 큰 불, 지진 8번, 유성이 떨어지는 불길함, 가뭄 6번, 큰 비, 때 아닌 폭설과 우박, 벼락과 같은 기상이변 등 매우 많은 자연 재해가 서술되었다. 그리고 비록 역병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한 번에 그치고 있지만, 당시 신라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던 일본의 『속일본기』

101) “凡六月十二月晦日大祓者 中臣上御祓麻 東西文部上祓刀 讀祓詞 訖 百官男女 聚集祓所 中臣宣祓詞 卜部爲解除.”(『養老神祇令』 大祓)

102) “式部文云 六月十二月晦日百官會集 大祓儀 其日平坦 大藏 木工 掃部 帳幄鋪設 御大伴 壬生門之大路各有常儀.”(『法曹類林』 卷200 公務)

103) 『양로령』에 의하면, 궁의 외곽을 둘러싼 남·북의 벽에 각각 3개, 동·서의 벽에 각각 4개의 문이 있는데, 동·서의 가장 북쪽에 설치된 2개의 통용문을 제외한 12개의 문을 宮城十二門이라 불렀다. 藤原宮, 平城宮, 長岡宮, 平安宮 등에는 문의 守衛를 담당한 씨족명을 문의 이름으로 삼았는데, 이후 중국식 개명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大伴의 씨명이 붙여졌던 大伴門은 화동 7년(714)에 四神의 이름을 딴 朱雀門으로 개명되었다(서보경, 2019, 『東西文部와 大祓』 『韓日關係史研究』 64, 98~102쪽).

기록을 통해 보면, 역병도 매우 자주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뭄 등으로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면 기근을 초래하고, 기근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역병의 유행으로 이어짐을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하였다.

이에 먼저 2장에서는 『삼국사기』 성덕왕본기에 유일하게 기록된 역병 기록인 714년 이외에 705~707년, 735년, 736~737에도 대규모 역병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8세기 전반은 한반도의 신라와 발해가 중국, 일본과 실시간으로 매우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점에서, 다양한 교류와 함께 역병도 대규모로 함께 유행한 것이다.

3장에서는 이처럼 대규모로 발생한 역병을 퇴치하기 위한 의례의 내용에 대하여 각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중에서도 신라 성덕왕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삼국유사』 기이 수로부인조를 중심으로 하여, 이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삼국유사』의 여러 다른 설화들까지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면, 수로부인 설화를 전염병 퇴치 의례와 연결시켜 보았다. 곧, 『삼국유사』 등에는 퇴치의 대상인 귀신과 악한 용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전염병의 징후와 연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라 성덕왕 시기의 유력한 고위 귀족이었던 순정공이 지방에 파견되어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로부인을 잡아 간 용을 지역 백성들과 함께 퇴치하고 부인을 구한다는 수로부인 설화의 내용 속에는, 당시 가뭄과 같은 이상 기후가 가져왔을 전염병에 대한 퇴치 의례의 모습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이후 현강왕 시기에는 역신을 물리치는 처용 설화로 나타나고,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이를 계승하여 역신을 쫓는 의례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외에도 『삼국사기』 제사지를 통해 전염병 퇴치 의례가 행해졌을 제사 장소를 추적해 보았고, 『天地瑞祥志』의 자료를 일본의 『속일본기』 기록 등과 연결시켜 보면서, 전염병 퇴치 의례의 시기와 제수로 사용되었을 동물 등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 【참고문헌】

### 1. 사료

-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記」  
『天地瑞祥志』, 『宋高僧傳』, 『諸病源候論』, 『禮記』, 『周禮』  
『續日本紀』, 『延喜式』, 『令義解』, 『養老神祇令』, 『法曹類林』

### 2. 단행본 및 저서

- 김수태, 1996, 『신라 중대 정치사연구』, 일조각.  
김일권, 2011,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대한감염학회, 2007, 『감염학』, 군자출판사.  
富土川游 著, 1904, 『日本醫學史』, 裳華房(박경, 이상권 共譯, 2006, 『日本醫學史』, 흥인문화사).  
辛鍾遠, 1992, 『新羅初期佛敎史研究』, 民族社.  
安田政彦 編, 2017, 『自然災害と疾病』, 竹林舎.

### 3. 논문

- 權惠永, 1999, 「『天地瑞祥志』 편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白山學報』 52.  
金斗南, 1981, 「痘瘡 장승考-朝鮮時代의 痘瘡對策과 장승」 『한국민속학』 14.  
金興三, 1998, 「新羅 聖德王의 王權強化政策과 祭儀를 통한 河西州地方統治(上)」 『江原史學』 13·14合.  
金東旭, 1983, 「新羅의 祭典」 『新羅民俗의 新研究(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4)』.  
김복순, 2010, 「신라의 백고좌법회」 『신라문화』 36.  
김일권, 2002, 「『天地瑞祥志』의 역사적 의미와 사료적 가치-撰者에 대한 재검토와 『高麗史』 所引 記事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26.  
김일권, 2017, 「고려시대 천지서상지에 나타난 한중 고대 천지상서의 교응적 자연학」 『耽羅文化』 56.  
노중국, 2011, 「『삼국유사』 惠通降龍조의 검토- 질병 치료의 관점에서」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32.  
박남수, 2012, 「新羅 聖德王代 ‘上宰’ 金順貞과 對日交涉」 『신라사학보』 25.

- 서보경, 2019, 「東西文部와 大祓」 『韓日關係史研究』 64.
- 서영대, 2002, 「水路夫人설화 다시 읽기」 『용, 그 설화와 문화』, 민속원.
- 신선혜, 2016, 「신라 성덕왕대 禁殺生 下敎의 배경과 의미」 『韓國古代史研究』 83.
- 榮原永遠男, 2010, 「遣新羅使と疫瘡」 『日本古代の王權と社會』, 塙書房.
- 李基東, 1998, 「新羅 聖德王代の 政治와 社會- '君子國'의 內部事情」 『歷史學報』 160.
- 李基白, 1982,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韓國史講座』 古代篇, 一潮閣.
- 이기봉, 2011, 「新羅 聖德王代の 災異와 儒敎政治」 『韓國史研究』 152.
- 李英澤, 1980, 「우리나라 痘瘡에 대한 醫史學的 研究-우리나라 史書 및 古典醫書를 중심으로」 『中央醫學』 38.
- 이장웅, 2020, 「8세기 전반 신라, 발해, 일본의 외교 경쟁과 재난」 『동아시아고대학』 59.
- 이장웅, 2020, 「신년 의례를 통해 본 8세기 전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신라·발해·당·일본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新羅史學報』 49.
- 이장웅, 2021, 「백제 불교의 일본 전파와 역병」 『동아시아고대학』 63.
- 이현숙, 2001, 「신라통일기 전염병의 유행과 대응책」 『한국고대사연구』 31.
- 이현숙, 2009, 「질병, 치료, 종교 : 한국 고대 불교의학」 『韓國思想과 文化』 48.
- 이현숙, 2013, 「역병으로 본 한국고대사」 『新羅史學報』 28.
- 이호영, 1971, 「한국 고대사회의 재해와 구빈책-삼국 및 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史學志』 5.
- 전덕재, 1997, 「新羅 中代 對日外交의 推移와 眞骨貴族의 動向-聖德王~惠恭王代를 중심으로」 『韓國史論』 37,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 전중휘, 1993, 「전날의 마마(痘瘡)와 그 예방」 『醫史學』 2-2.
- 정기용, 2019, 「고대 일본의 역병과 대응책 연구-737년 역병을 중심으로」, 고려대 사학과 석사논문.
- 정기용, 2020, 「역병의 대유행과 조정의 대응책-天平 9(737)年 역병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53.
- 曹凡煥, 2015, 「신라 중대 聖德王의 왕위 계승 再考-『三國遺事』의 五臺山事蹟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43.
- 채미하, 2006, 「신라의 농경제사와 '별제(別祭)」 『國史館論叢』 108.
- 최광식, 1996, 「新羅와 唐의 大祀·中祀·小祀 비교연구」 『韓國史研究』 95.

ABSTRACT

## Rite to Fight Infectious Diseases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deok of Silla and Lady Su-ro

Lee, Jang-woong

In this article, we wanted to examine the reality of disasters, including infectious diseases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deok of Silla, and also the ritual of eradicating them. To this end, A Historical Diary of Japan Zoku Nihon ki, a historical book of Japan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deok, were also actively referenced and inferred even the facts that were not recorded in the Samguk sagi. It was also intended to connect Suro lady's tales, recorded in the Samguk-Yusa, set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deok, with the ritual of eradicating infectious diseases.

In the Suro lady's tales, Sunjeonggong, a high-ranking aristocrat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deok, went to the provinces to stabilize the people, and in the process, the dragon that captured Suro lady was eradicated with the local residents. It is understood that this Suro lady's tales contains a ritual for eradicating infectious diseases that would have been caused by abnormal weather conditions such as drought at the time.

In addition, we also looked at the place, timing, and contents of the ritual of eradicating infectious diseases.

Key Words : Silla(新羅), King Seongdeok(聖德王), A Historical Diary of Japan Zoku Nihon ki(續日本紀), Suro lady(水路夫人), the ritual of eradicating infectious diseases

논문 투고일 : 2021. 7. 15. 심사 완료일 : 2021. 7. 29. 게재 확정일 : 2021. 8. 6.